

# 민족혼을 계승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용인대학교

김정행  
용인대 총장



##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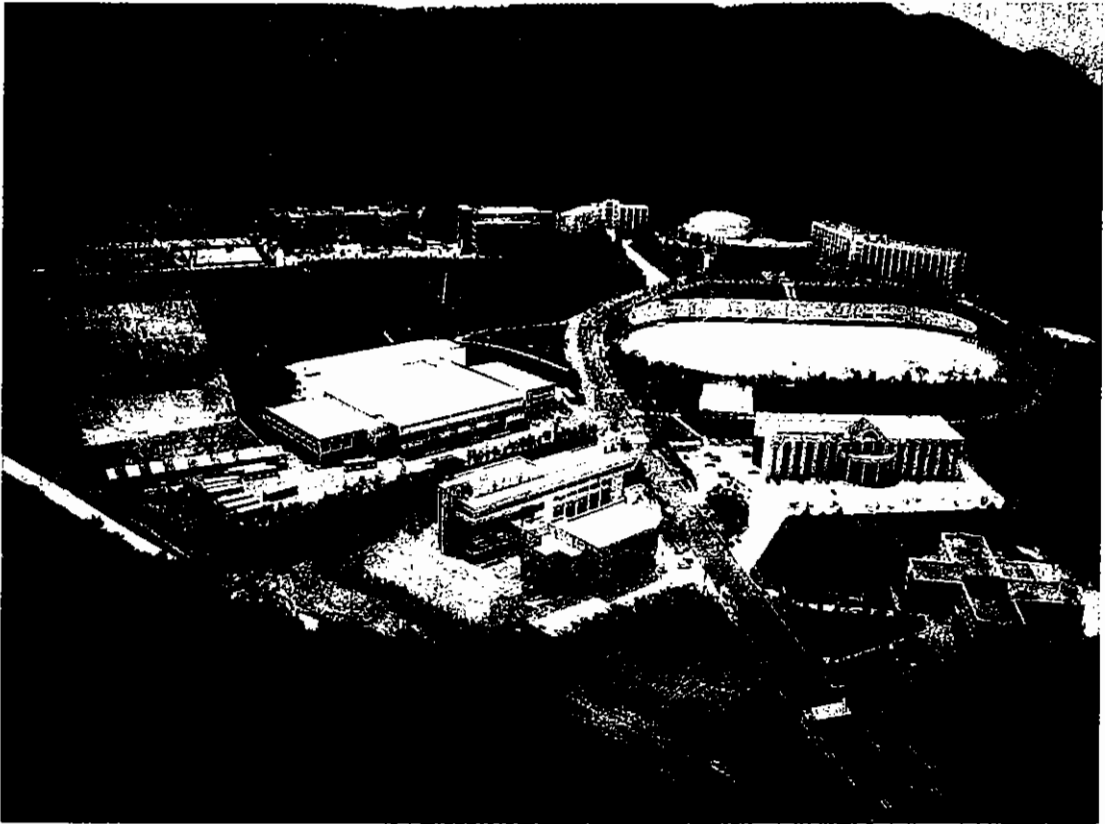
### 1) 창학 이념

“도 의상마 욱이위인”(道義相磨 欲而  
僞人), 즉 도의를 갈고 닦아 사회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 되자는 교육철  
학을 건학 이념으로 표명하고, 당시의 혼란  
스러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이 민  
족과 국가를 슬기롭게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리하  
여 본교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도리를  
세우고 자아를 실현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 2) 발자취

본교는 6·25 직후인 1953년 혼란된 사회  
의 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  
를 슬기롭게 지도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고자 뜻있는 교육계, 체육계 인사들이 모  
여서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인 ‘대한 유도학  
교’(당시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로 개교하  
였다. 당시 대한유도회 회장이었던 이범석  
선생이 초대 교장으로서 1백 명의 신입생  
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1956년 4월, 본교의 운영 주체를  
대한유도회에서 재단법인 대명학원으로 변  
경 설립하였고, 학제 역시 2년제에서 4년제  
로 개편되었다.



▲ 용인대는 예·체능 특성화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접목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보건과학·한의학·예술학의 발전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다.

1964년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되면서 학교의 기틀을 잡아갔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1970년 4월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으로 학교가 이전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1971년 6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받으며, 제3대 이원수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재정적인 안정과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본격적인 고등교육 기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85년 2월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어 약 11만 평의 부지에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용인 시대의 장을 열었다.

1986년 3월, 5대 교장으로 다년간 문교

행정의 경험을 지닌 고광득 학장이 취임하면서 학교 발전의 중요한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1988년 12월,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편하여 제4대 이사장으로 이규훈 선생이 취임하면서 학교법인 대명학원을 丹蒙學園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3년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용인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94년 김정행 본교 교수가 제2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김정행 총장의 취임은 이규훈 이사장의 교육적 의지와 화합하여 용인대학 제2창학의 기치를 올리게 되었으며 '민족혼을 계승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반세기 동안 쌓아온 예·체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용인대학의 특성화에 중점을 둔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둔 본교는 현재 계속적인 의욕으로 대학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교는 5개 단과대학으로 분리 운영되는 종합특성화 대학으로서, 쾌적한 환경이 조화된 교정과 첨단 과학기자재 그리고 폭넓게 구성된 교수진은 21세기 새로운 명문사학으로 부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무도를 통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화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 전공별 특성화 대학과 실용학문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교수진의 활발한 공동연구 및 공동교류와 학생들의 학점교류 수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향후 본 대학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체육분야의 학문적인 체계 확립과 스포츠의 과학화를 기하고, 이와 연계하여 보건과학 및 한의학 분야와 예술학의 발전에도 강조점을 둠으로써 체육·예술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국내 유일의 전통교육 계승과 창조를 통한 실용학문의 발전과 연계된 내용으로 특성있는 대학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 2. 현 황

### 1) 시설 개요

총 1,066평의 대학본부 건물과 3,485평의 종합체육관, 인성관, 중앙도서관, 단호관, 생활관, 각 단과대학별 건물과 야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 총 114,000평의 넓은 대지 위에 교육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2) 부속기관

#### ① 중앙도서관

본교의 중앙도서관은 서적과 도서 관계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술 연구와 진리 탐구 및 독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3년 개교와 함께 개관하였다. 중앙도서관은 연건평 1,440평의 5층 건물로서 700석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서는 그동안 여러 독지가들의 기증과 1990학년도 정규대학 개편시의 도서 확충으로 18만여 권에 이르고 있고, 완전 개가식 체제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9월부터는 전산화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터미널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층에는 LD, CD, VTR 등 교육용 영상자료가 있는 전자도서실을 갖추고 있으며, 어학공부를 할 수 있는 Lab 시설과 각종 어학관계 VT·CT를 비치하고 있다.

#### ② 전자계산소

본 전자계산소는 재학생의 컴퓨터 교육을 위한 실습 지원, 교수의 연구 지원, 학사행정 업무의 전산화와 기타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본 전자계산소는 이를 위하여 전자계산기 관리 운영 및 과학교육 지원,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대학행정 지원 및 기타 본 전자계산소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비영리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③ 체육관

체육관은 전인적인 체육인으로서의 신체 발달과 인격 함양의 전당이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상호 친선 및 화합의 현장이다. 체육관은 국제 규모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설과 기구는 학생들의 수업과 훈련을 위해 이용되지만 학생들의 수업이나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각종 공식행사, 본교 교직원들의 체육활동

및 일련의 절차와 승인을 거친 외부단체와 개인의 체육행사에도 이용할 수 있다.

#### ④ 체육부

체육부는 체육특기자 및 훈련단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체육부에서는 각 종목별 체육특기자 선발과 훈련단 관리, 시합에 대비한 연간 훈련계획 수립과 각종 경기를 통한 과학적인 평가를 하며, 선수 개인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역량 분석 등 선수 경기력 향상과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기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⑤ 사회교육원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본교는 진리의 탐구와 예술 특화 및 한국적 전통 계승을 위해 예·체능 중심의 특화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UR 협상에 따른 세계화 대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인적 자원 그리고 지적·기술적 성과들을 각계 각층의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면 국민 교육적 차원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일찍부터 방대한 시설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권장하고 있고, 지역사회 시민들도 개인의 흥미에 따라 끊임없이 배우려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교는 이에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사회교육원은 그 자체가 학습사회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평등사회와 능력사회의 구현 및 평생교육(재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 및 학습사회화를 지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학상마 욱이위인-도  
의를 갈고 뒤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  
이 되자-은 용인대의  
건학 이념이다.

### 3. 대학 발전계획

본교는 2000년대 대학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국제화의 경쟁 속에서 무한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용인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 추구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본교의 예·체능 특성화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접목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 보다 높은 차원에서 체육 분야의 학문적인 체계 확립과 스포츠의 과학화를 기하고, 보건과학 및 한의학 분야와 예술학의 발전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체육·예술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체육 분야의 전통무도와 물리치료 등 보건학 분야, 한의학과, 예술 분야로는 무용(한국고전무용), 미술(고미술), 음악(국악), 연극, 영화, 민속학 등 민족 고유의 전통을 되찾고 특수성을 살려나가는 부문에 중점을 두어 발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화 추구의 기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합리적이고 특성있는 학사 운영
  - 독특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 전공과정 편성의 효율성 추구 및 운영 개선
  - 학부와 대학원 학과의 연계적 개설로 심도있는 연구 분위기 조성
  - 국제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발
  - 특성화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교육과정 편성
- ② 시설·설비의 현대화

-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충분한 실습기기의 확보
  - 실습 및 연구용 시설의 확충
  - 후생복지 시설 확충
- ③ 효율적인 운영 체계의 모색
    - 예산제도 확립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 대학 전산화에 의한 효율적인 인적·물적 관리
    - 가능한 주·야간 학과의 연계 개설로 재정 확보를 통한 충분한 교수요원 확보와 설비의 효율적 활용
    -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
    - 산학연계, 각종 단체 등을 통한 연구비·장학금 지원 확충, 활동 강화
    - 인적 자원과 시설의 개방 활용으로 자체 수익활동 증대 및 사회봉사
    - 법인 수익사업체 경영에 의한 법인 전입금 확충

이와 같은 계획으로 본 대학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기본목표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 조정하여 연차적인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면, 본교만의 독창적이고도 특성화된 면모를 갖추어 내실있고 알찬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교는 '2000년 용인비전'이라는 의욕적인 학교 발전 계획을 갖고 '민족혼을 계승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으로서 작지만 큰 사람을 만드는 대학이 되기 위해 5,000여 재학생과 6,000여 동문, 400여 교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새로운 용인학풍 구성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림픽 금메달을 일구어낸 탐의 저력으로 연구실과 지원 시설의 불을 24시간 밝히고 있다. ■